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와 우울을 매개로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김 지 민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이 은 경<sup>†</sup>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와 우울을 매개로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 밖 청소년패널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318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우울, 스마트폰중독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와 우울을 거쳐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매개가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장애와 우울 각각 매개를 확인하였으나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 코칭에서의 개입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우울, 스마트폰중독, 코칭

---

<sup>†</sup>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eklea@mju.ac.kr, 02-300-0624

스마트폰의 보편화는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스마트폰의 유용성, 접근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전년에 대비하여 5.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2021).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의 무절제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 감소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코칭과 상담이나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이 10명 중 4명꼴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독은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보상적 경험에 의해 시작되지만 점차 통제력을 잃으면서 지속된다(김교현, 2007). 그러나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 중독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 왔을 뿐 뚜렷하게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다(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여전히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행위와 관련된 영역에서 '중독'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APA, 2015). 다만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혹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김동일, 이윤희, 정여주, 강민철, 2013).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권선중, 엄나래, 2016).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권선중, 엄나래,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겪는다는 것이 중요하게 지적되는 문제이다(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 최인재 외, 2015).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특히 급증하는 이유는 학업을 중단했다는 것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선(박봉선, 2019)과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수반된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하기 쉬운 점을 지적한다(고은정, 김병년, 2020; 한상규, 2019).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문제아나 실패자라는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이화명, 김영미, 2017).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은 사회적인 정체성과 불일치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정체성을 손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꼬리표나 차별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이인옥, 이은옥, 2006), 청소년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거나 자기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이종남, 한상미, 김가희, 2020).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은 구직활동을 할 때 학력 위주의 사회풍토로 어려움을 경험하는(김범구, 조아미, 2013;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진로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진로장애는 진로와 관련된 현재에 경험하고 있거나 미래에 당면할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말한다(손은령, 2000). 즉,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낙인은 진로를 성취하는데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하여 진로장애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비롯한 환경구축이 충분하지 않아 취업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아, 2017). 진로장애의 지각과 진로를 선택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우울과 같은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김민선, 2019; 박동진, 김나연, 2019).

한편, 우울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된다(황소희, 이영애,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제기되었다(오은경, 2014; 윤철경 외, 2013). 이들의 우울은 대인관계 감소와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Ybarra, Alexander, & Mitchell, 2005)을 제시한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일반이용자 청소년에 비해 경험하는 우울 수준이 높으며, 치료를 요하는 임상적 수준에 이르는 중독집단의 임상적 수준 또한 일반이용집단보다 약 1.5배에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준, 2018). 그리고 우울한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된다(이하나, 양승목, 2018, 황경혜 외, 2012). 종단자료를 자기회귀 효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스마트폰 의존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예인, 김주일, 2019)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

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중독 간의 관계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이 각각 매개효과를 보였다. 진로장애가 매개변인으로 증명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은정 외(2020)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장애가 매개함을 검증하였다. 김민선(2019)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진로장애가 매개함을 검증하면서 이들 변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우울이 매개한 선행연구에서 양은륜과 정문경(2020), 그리고 최홍일과 정윤미(2020)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중독간의 관계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이 매개하며, 진로장애와 우울 간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각각 작용하거나 진로장애에서 우울을 경로(김민선, 2019)하여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진로장애 혹은 우울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여 각 변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들의 문제를 일탈이나 부적응의 문제로 낙인(오은경, 2014)찍는 사회적 취약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우울, 및 스마트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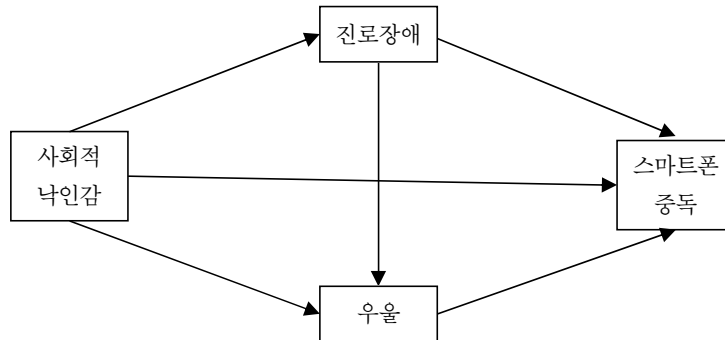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독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장애와 우울이 어떠한 경로로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인들의 경로를 검증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과 코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은 이중매개를 하는가? 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이론적 배경

### 스마트폰중독

과도하고 무절제한 스마트폰 사용은 정신건강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한국지식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2년에 11.1%로 2019년에는 20.0%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하였다. 특히, 청소년

년의 경우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이 35.8%에 달하며 그 중 고위험군이 5.0%로 전체 연령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한국지식정보화진흥원, 2021).

스마트폰중독은 인터넷중독에 근거하며 밀접한 관련이 있다(권선중, 엄나래 2016). ‘인터넷중독’은 1990년대 초반 Goldberg와 Young이 인터넷사용의 부정적 결과에 주목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인터넷사용의 문제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파악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중독을 의미하는 개념인 스마트폰 과의존의 용어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척도’를 개발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조절실패, 현저성, 그리고 문제적 결과 3요인으로 구성된다. 조절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다.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해도 지속적인 스마트폰 이용을 하는 것이다. 진단에 대한 결과는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되는데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 문제, 건강문제 등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이다. 잠재적 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한편,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분류체계인 DSM 제5판을 개정할 때 인터넷중독 진단을 인터넷 게임장애로 제안하여 추가 연구로 고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DSM 제5판에 따르면 비물질 관련 장애로 분류된 병적도박이 인터넷 중독과 유사한 발생기전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APA, 2013).

####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중독의 관계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부모, 선생님, 또래 등 주변인에 대한 평가가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를 떠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정규교육과정의 궤도에서 벗어난 경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받고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화명, 김영미, 2016). 낙인은 나와 다른 개인이나 나와 다른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의미하며(이인옥, 이은옥 2006), 사회적 낙인은 사회에서 원하는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부정적 인식을 의미한다(박지원, 문성호, 2020;

Corrigan, 2004).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경우 수치심이나 낮은 가치감, 소외감 등의 부정적 심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김영희 2015)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주목할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사회적 낙인은 사회적인 정체성과 불일치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체성이 손상될 수 있고 이는 차별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인옥 외, 2006). 또한, 손상된 정체감은 부정적 자기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윤철경 외, 2014), 부정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현, 2019; 박소현, 2019).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데이터로 분석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고은정, 김병년; 2020; 김병년, 김상용; 2020)와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양은륜, 정문경, 2020; 최홍일, 정윤미, 2020).

####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및 우울의 관계

진로장애는 진로와 관련된 현재에 경험하고 있거나 미래에 당면할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말한다(손은령, 2000). 진로장애를 경험할 경우 취학, 진학, 직업생활, 승진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의 선택, 목표, 동기, 그리고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다

(손은령 2001).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한 것들을 성취하는데 장애가 따르는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같은 어려운 취업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7).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낙인이 되어(이종남 외, 2020), 진로장애를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정보부족 등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생 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황선미, 신현숙, 2007),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육성필 외, 2017). 그러나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진로장애를 경험할 때 어려움 해소를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진 외, 2010).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이종남 외, 2020). 그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장애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선, 2019; 최홍일 외, 2020).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를 촉발시키며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진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울을 높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고은정 외(2020)의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를 매개로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는

진로장애가 스마트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장애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경로를 확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을 중단하여 진로장애를 더욱 크게 느끼는 청소년이 경제활동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울의 증상이 촉발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 및 진로상담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진로장애와 스마트폰중독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고은정, 외, 2020; 고남주, 구자경, 2015). 예컨대,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올바른 진로선택과 결정을 의미하는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은 스마트폰게임을 포함한 게임중독수준이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고남주 외, 2015)에서 청소년의 진로장애가 스마트폰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 심리를 경험하는 것이 스마트폰중독을 낮추기 위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장애 외에도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사용문제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김소영, 2016; 황소희, 이영애, 2018). 스마트폰중독 청소년은 우울의 정서상태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김태량, 김경화, 2020; 김태량, 최용민, 2016).

이와 더불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2014). 이는 후기청소년에 해당

하는 대학생이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변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장애는 진로와 관련된 현재에 경험하고 있거나 미래에 당면할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함에 따라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장애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김민경(2014)의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진로장애, 우울,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연구방법

###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

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연구」의 패널 데이터 중 2017년에 실시된 5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5차년도 패널데이터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를 대변하는 변인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318명 중 정상성을 위배하는 극단치 12부를 삭제하고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 수는 306명이었다. 조사대상자는 총 306명(남: 160명, 여: 146명)이고, 연령은 18세가 3명(1.0%), 19세가 13명(4.2%), 20세가 28명(9.2%), 21세가 81명(26.5%), 22세가 110명(35.9%), 23세가 64명(20.9%), 24세가 7명(2.3%)이었다. 평균 나이는 21.64세(18세~24세,  $sd=1.16$ )로 모두 후기청소년에 해당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응답할 시점에서 상태에서 정규과정을 중단하거나 복교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가 143명(46.7%), 대학에 진학한 상태가 112명(36.6%),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가 17명(5.6%), 그리고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상태가 8명(2.6%) 순으로

표 1. 조사 대상자의 현재 상태

항목	빈도(%)	
중단·복교상태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143(46.7)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8(2.6)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17(5.6)
	대학에 진학한 상태	112(36.6)
	대학에 졸업한 상태	15(4.9)
	대학 중퇴	11(3.6)
	총계	306(100)
졸업자격 취득여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음	55(38.5)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88(61.5)
	총계	143(100)

응답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 여부의 문항에서는 취득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8명(61.5%)이었고 취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5명(38.5%)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 주요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 데이터의 조사 항목이다.

#####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낙인감은 Harvey(2001)의 낙인화 척도(Stigmatization Scale) 축약형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으로 측정된 것으로 주금옥(2002)이 번안하였다. 사회적 낙인감은 사회적 소외와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사회적 낙인감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818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진로장애

진로장애는 김은영(2001)이 Swanson 등(1991, 1995, 1996)의 진로장애 검사(Career Barrier Inventory: CBI)를 토대로 개발한 척도(진로탐색장애검사: KCBI)를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하고 개발한 척도이다. 해당 척도는 청소년이 진로를 계획, 결정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그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장애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정

보 부족, '미래 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의 3개 영역 13개 문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배주미 외 2010).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장애를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장애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895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우울

우울은 청소년의 우울 증성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우울척도는 이경상 외(2011)가 한국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로 총 10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우울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걱정이 많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903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 15문항 중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합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이창호, 김경희, 2013).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761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와 우울을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자료는 SPSS 22.0과 PROCESS macro ver. 3.5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Hayes, 2013).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표 2 참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점수는 사회적 낙인감 1.94, 진로장애 2.25, 우울 2.08, 그리고 스마트폰중독 1.68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 우울, 스마트폰중독 모두에서 정적 상관(각각  $r = .357, p < .01$ ;  $r = .379, p < .01$ ;  $r = .133, p < .05$ )을 나타냈다. 사회적 낙인감이 높을수록 진로장애, 우울, 및 스마트폰중독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진로장애는 우울과 스마트폰중독 모두 정적 상관관계(각각  $r = .539, p < .01$ ;  $r = .296, p < .05$ )를 나타냈다. 이는 진로장애를 경험할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중독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스마트폰중독과 정적 상관( $r = .315, p < .01$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중독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학교 밖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의 이 중매효과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

표 2.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우울 및 스마트폰중독 간의 상관관계

	1. 사회적낙인감	2. 진로장애	3. 우울	4. 스마트폰중독
1. 사회적낙인감	1			
2. 진로장애	.36**	1		
3. 우울	.38**	.54**	1	
4. 스마트폰중독	.13**	.30*	.32**	1
<i>M(SD)</i>	1.94(.40)	2.25(.52)	2.08(.56)	1.68(.47)
<i>N</i>	306	306	306	306

주. \*\* $p < .01$

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진로장애와 우울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PSS의 Process Macro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고, 분석 결과

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0.47, p<.001$ ). 두 번째 회귀식에서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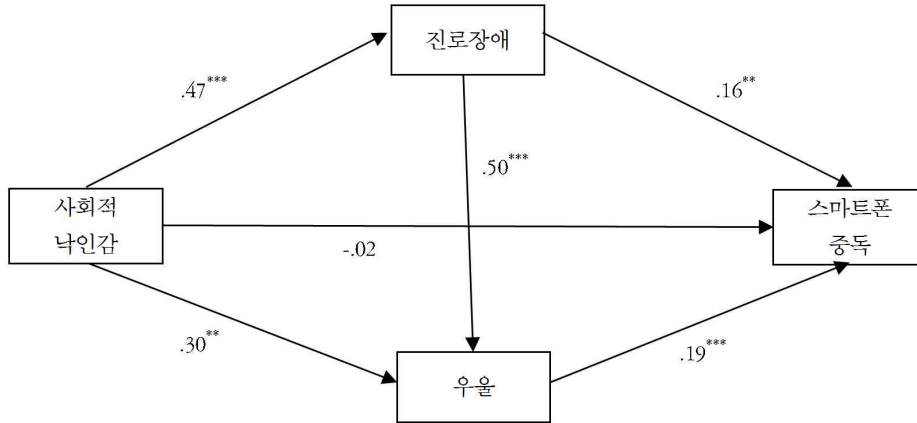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의 이중매개 모형

표 3.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중독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의 매개효과

변인		$\beta$	S.E.	t	95% 신뢰구간	
독립	종속				LLCI	ULCI
사회적낙인감	→ 진로장애	.47	.07	6.66***	.33	.60
	F			44.33***		
	R <sup>2</sup>			.13		
사회적낙인감	→ 우울	.30	.07	2.60**	.16	.44
	진로장애	.50	.05	9.20***	.39	.60
	F			74.71***		
	R <sup>2</sup>			.33		
사회적낙인감		-.02	.07	-.27	-.16	.12
진로장애	→ 스마트폰중독	.16	.06	2.78**	.05	.28
	우울	.19	.06	3.39***	.08	.30
	F			13.97***		
	R <sup>2</sup>			.12		

주. \*\* $p<.01$ , \*\*\* $p<.001$

로장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각각  $\beta=0.30, p<.01$ ;  $\beta=0.50, p<.001$ ). 마지막으로,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진로장애와 우울은 스마트폰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매개를 확인하였다(각각  $\beta=0.16, p<.01$ ;  $\beta=0.19, p<.001$ ).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를 통해 간접적으로 스마트폰중독에, 그리고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와 우울의 간접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 또는 우울, 그리고 진로장애에서 우울로의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중독을 더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간의 직접효과와 진로장애와 우울의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bootstrapping의 표본 수

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를 경유하여 스마트폰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는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8, CI[0.01\sim 0.26]$ ).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을 경유하여 스마트폰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는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6, CI[0.02\sim 0.11]$ ). 마지막으로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와 우울을 경유하여 스마트폰에 이르는 경로도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4, CI[0.02\sim 0.07]$ ).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

표 4.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직접효과						
사회적낙인감		스마트폰중독	-.02	.07	-.16	.12
간접효과						
총효과			.18	.04	.10	.26
사회적낙인감	진로장애	스마트폰중독	.08	.03	.02	.14
사회적낙인감	우울	스마트폰중독	.06	.03	.02	.11
사회적낙인감	진로장애	우울	.04	.02	.02	.07

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우울, 및 스마트폰중독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높을수록 진로장애, 우울, 및 스마트폰중독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손은령, 2020),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을 높임을 증명한 연구(김민선, 2019; 이종남 외, 2020), 그리고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고은정 외, 2020; 김병년 외, 2020; 양은륜 외, 2020; 최홍일 외,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진로장애 수준이 높으면 우울과 스마트폰중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애 수준이 높으면 우울도 높아짐을 증명한 연구(김민선, 2019)와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간의 관계를 본 연구(고은정 외, 2020)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우울과 스마트폰중독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두 변인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한 선행연구(박용민, 2011; Alhassan et al., 2018; Mohamed, Mostafa, 2020)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및 우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장애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경로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진로장애는 스마트폰중독 수준을 더욱 가중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를 매개로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한 연구(고은정 외, 2020)와 일치한다. 두 번째 경로는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스마트폰중독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을 매개로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최홍일 외, 2020; 김민선, 2019)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세 번째 경로는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와 우울을 통하여 스마트폰중독을 이중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울에 영향을 미쳐 스마트폰중독을 가중시키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진로장애는 우울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고 부정적인 정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중독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를 매개로 스마트폰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은정 외(2020)의 연구결과를 확장시킨 결과로 진로장애가 스마트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장애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경로를 확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중독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인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

감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선행연구(고은정 외, 2020; 김병년 외, 2020; 양은륜 외, 2020)와 차이점을 보였다. 고은정 외(2020)과 김병년 외(2020)은 2014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2차년도 자료(2014)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진로장애(고은정 외, 2020)와 충동성(김병년 외, 2020)의 매개효과를 제시하여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와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중독의 두 변인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를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될 때 이에 수반되는 부정적 정서, 특히 우울수준을 높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중독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우울, 스마트폰중독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여 학교 밖 청소년 코칭에 대한 개입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규교육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윤철경 외, 2018).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코칭의 개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연희와 탁진국(2017)은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학생 8명을 대상으로 6회기 진로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로

결정 수준과 학교적응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흥미, 적성, 가치관, 강점을 통합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룹 코칭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오경화와 탁진국(2020)은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태도 성숙 향상을 위한 그릿향상 그룹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끈기와 열정을 지속시키는 그릿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추후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코칭의 구체적 개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코칭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칭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조력하여 변화하고 성장 가능한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김중운, 정보현, 2012)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는 정규교육 과정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더욱 적합한 개입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 시기인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와 우울을 매개로 스마트폰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와 우울을 경감시켜 스마트폰중독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관련 성취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코칭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는 우울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중독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정보 탐색기회나 진로 준비도를 높이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낙인감을 낮추고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정현희, 2020).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보다 더 일찍 사회에서 경제활동(노지혜·문성호, 2019)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로 인하여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 코칭분야에서 이들의 부적응 개입을 중심으로 치료적 관점의 개입보다는 긍정 정서를 향상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과 구직활동을 위한 준비조력과 같은 제도의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윤철경 회(2015)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연구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몇몇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그 정책을 살펴보면, 더 많은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홍보 강화, 지역사회기관의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커리어넷 기능보완을 통한 자격증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본 연구는 학교의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코칭 필요성을 제시하는 자료를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집되었던 패널데이터를 토대로 2차 분석연구로 측정도구에 의존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둘

째, 학교 밖 청소년의 5차년도 패널자료로 분석대상으로 검증한 자료이므로 차수가 진행되면서 탈락이 발생하여 충분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의 진로결정에서는 개인요인, 학업 및 학교요인, 문제행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이들 개인차를 고려하여 연구하여 심층적인 코칭 방안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남주, 구자경 (2015). 중학생의 가족스트레스와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289-302.
- 고은정, 김병년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105-131.
- 고은정, 김병년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4), 33-63.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통계자료 SM 2020.
- 권선중, 엄나래 (2016).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개편 최종보고서. 2016년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교현 (2007). 중독, 그 미궁을 헤쳐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677-693.
- 김동일, 이윤희, 정여주, 강민철 (2013). 정신건강 문제와 인터넷 중독: 다층메타분석을 통한 효과크기 검증. 상담학연구, 14(1),

- 285-303
- 김민선 (2019). 학교 밖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의 관계: 진로장벽과 진로낙관성을 매개로.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1029-1056.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병년, 김상용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충동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6), 3397-3410.
- 김소영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우울, 공격성의 중단적 관계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적용. 중등교육연구, 64(2), 315-336.
- 김소현 (2010). 다층성장모형(HLM)을 통한 청소년의 비공식적 낙인 변화 추정.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7, 7-31.
- 김영희 (2015). 점정고시를 선택한 일반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경험: 학교 밖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고군분투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연구, 17(2), 131-157.
- 김정숙 (2003). 휴대전화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운, 정보현(2012). 학습코칭프로그램이 방과후아카데미 고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146-165
- 김태량, 김경화 (2020).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6), 607-619.
- 김태량, 최용민 (2016).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2(3), 185-210.
- 김하나, 김혜연(2015).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제주도 지역아동센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0(1), 159-169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61-85
- 박봉선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81-106.
- 박지원, 문성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3, 5-30.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2(2),251-262.
- 손은령 (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5(2), 1-14.
- 양미진, 허자영, 채민정, 김경민 (2010).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장벽 연구: 사이버상담 게시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4), 45-73.
- 양은륜, 정문경 (2020).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6), 1781-1796.
- 오경화, 탁진국 (2020). 그릿향상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태도성숙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4(1), 21-46.
- 오은경 (2014).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배제 및 우울

- 간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12(2), 65-80.
- 육성필, 남옥남, 박지란, 박성혜, 김은영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과정 탐색 및 학업 중단 인식 연구 - 강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535-561.
- 윤예인, 김주일 (2019).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분석. 학교사회복지, 48, 219-241.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 (2014).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강호, 유성렬, 김태화, 손희정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 1-484.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연구보고 2018-19). 서울: 여성가족부.
- 이상준(2018).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0(3), 47-67.
- 이연희, 탁진국(2017).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1(2), 69-87.
- 이인옥, 이은옥 (2006). 낙인(stigma) 개념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13(1), 53-66.
- 이종남, 한상미, 김가희 (2020).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4), 97-117.
- 이하나, 양승목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영향 변인의 관계에 대한 학령 및 성별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62(5), 175-214.
- 이현주, 정현희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8(4), 115-136
- 이화명, 김영미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9), 127-153.
- 이화명, 김영미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549-562.
- 최현아 (2017). 학교 밖 청소년 진로설정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꿈드림 프로그램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일, 정윤미 (2020).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60(4), 31-58.
-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2021).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7). 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상담복지적 접근. 2017년 청소년포럼 발표자료집.
- 한상규 (2019).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6(1), 7-22.
-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



- 지, 12(10), 365-375.
- 황선미, 신현숙 (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1), 229-245.
- 황소희, 이영애. (2018). 중학생의 우울증상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1(3), 343-363.
- Alhassan, A. A., Alqadhib, E. M., Taha, N. W. Alahmari, R. A., Salam, M., and Almutairi, A. F.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on to smartphone usage and depression among adults: a cross sectional study. *BMC Psychiatry* 18, 1-8.(DOI:https://doi.org/10.1186/s12888-018-1745-4)
- Corrigan, P.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DOI:https://doi.org/10.1037/0003-066X.59.7.614)
- Hargrove (1995). *마스터풀코칭*. 박재원 외 역 (2006). 서울: 김앤김북스.
- Mohamed, S. M. and Mostafa, M. H. (2020).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depression and self 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Nursing Open* 19;7(5), 1346-1353. (DOI: https://doi.org/10.1002/nop2.50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 Hayes, A.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Ybarra, M. L., Alexander, C., & Mitchell, K. J. (2005). Depressive symptomatology, youth Internet use, and online interactions: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 9-18.

원고접수: 2021. 05. 11  
최종 게재결정: 2021. 06. 22

## The Influence of Social Stigma on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Career Barriers and Depression among Out-of-school Youth

Jimin Kim  
Myongji College

Eunyoung Lea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out-of-school adolescents' social stigma on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career disorders and depression. In the process that social stigma of adolescents outside of school affects smart-phone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depression was verifi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8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5th year survey of out-of-school youth panel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For data analysis, the correlations and mediating effects between major variables were verifi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ll of the major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the social stigma of out-of-school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career disorders and depression, confirming a double mediation. In addition, in the process in which out-of-school adolescents' social stigma affects smart-phone addiction, it was confirmed that career disorder and depression were respectively mediated, but social stigma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se results, prevention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and intervention methods and implications for youth coaching were presented.

*Key words* : *Out-of-school Youth, Social stigma, career barrier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coaching*